

<한국근대미술-전통과 문명의 갈림길에서>

박영택(경기대 교수, 미술평론가)

6. 30년대 경성의 도시화와 향토색 논의

1898 년 한성에서 전차가 다니기 시작하면서 한성의 공간은 급속히 변화한다. 전기가 들어오고 1900 년에는 종로 네거리에 가로등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당시 가장 변화한 거리는 남대문과 동대문 사이에 있는 종로였는데 이후 일본인이 만들어가던 명동, 충무로 거리가 서서히 경성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다. 1930 년대는 일본인들의 생활공간이 확대되고 조선인의 남촌상가 이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민족 별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도시적 소비문화가 점차 확산되어 갔다. 本町(현재 충무로)일대의 일본인 상점에서 수. 이입품이나 기호품을 구매할 수 있는 조선인은 일부 중상류 계층이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본정 일대에서 외제품을 구매하는 소비경향과 굳이 본정으로 가서 물건을 시사는 심리였다. 본정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은 당시 유행의 첨단을 걷는 모던 보이, 모던 걸들의 표상 같은 것이었으며 개인적인 소비가 아니라 근대의 표상으로도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당시의 종로와 진고개 풍경을 방인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서울의 종로는 겨울이라 하면 진고개(本町)는 봄이다. 종로는 광막하고 쓸쓸하지만 진고개는 찬란하고 변화하다. 오붓하게 상품을 버려노코 유리창 하나라도 깨끗하게 닦거노코 진열장도 미술적으로 꾸며노하 신선미가 있거니와 거기 오락가락하는 군중들도 얼굴과 의복이 물질의 풍족으로 살찌고 윤택하여져서 그 거리와 사람은 훌륭하게 조화된 것이 마치 소조한 종로와 흰옷을 철드려거리고 가는 사람과 조화되는 것과 같다. 진고개는 사람 사는 곳과 갖고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레코-드 소리에 발마추워 창춘남녀가 우스며 걸어간다. 꽃 모양으로 씨운 수 천개 전기등이 꽃처럼 피여서 더욱 찬란하다.”(방인근, 마도의 향불)

한일합방 후 일제는 새로운 행정 수요의 확대에 의해 건축물들을 마구 세워나가기 시작했는데 당시 세워진 건물로 규모가 컸던 것들이 바로 총독부와 한국은행(1912 년), 서울역(1925 년), 서울시청(1926 년) 건물 등이다. 대부분 모더니즘양식으로 근대주의 건물들이 개별적 형태로 세워진 것이다. 식민주의 양식은 평면과 입면 구성을 미적 원리에 두었는데 완벽한 비례와 대칭, 그러면서도 조화를 강조했다. 상식적으로 침략자가 식민지에서 우선하는 일은 위풍적이고 둔중한 건물을 짓는 것이었다, 건축은 본질적으로 권력의 산물인 것이다. 도시는 경관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서양식 건물이 도시의 상징으로 자리잡았고, 거리구조가 바뀌었다. 조악한 일본식 또는 일본식과 서양식이 절충된 소위 서양식 주택과 함께 당시 관공서 등에 쓰였던

네오 바로크, 르네상스, 절충주의적 기법의 건물들이 도시의 새로운 풍경으로 자리잡아갔다. 외래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은 쪽은 교육, 종교, 상업, 행정관청 등의 일반 건축분야였다.

가장 먼저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한 것은 신식건물과 함께 거리의 간판이었다. 큰 행사들이 있을 때 거리의 기념 아치나 구조물들이 들어선 것과 함께 간판은 가장 먼저 시대의 변화를 예고하는 도시이미지의 하나였으며, 그것은 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픽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도시의 간판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미술인들로는 김복진, 안석주, 권구현 등이 '간판에 대한 품평'을 하기도 했다. 간판과 함께 거리의 곳곳에 광고가 붙기 시작한 것도 도시의 풍광 중의 하나였다. 특히 당시 카페가 가진 외형적 특성 중 두드러진 것도 바로 간판이었다. 당시 '모던한'풍조는 간판이라는 물리적 실체를 통해 거리의 이미지로 전환되었는데 간판은 식민지적, 현대적 도시성을 구체적인 체험의 대상으로 외화 시키는 매개체였다. 간판의 글자는 주로 한자였지만 가나와 영어도 상당수 존재하여 조선의 거리에서 이국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다. 간판과 진열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네온사인은 도시의 가로경관에 일대 전환을 초래하였다. 우리 나라에 옥외광고물로서 네온사인이 처음 보급된 것은 1932 년이었다. 네온사인은 야간광고매체로서 보행 중이거나 정차 중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가 점포 내에 들어오게끔 유도하는 장치이다. 1911 년에 발명된 네온사인(근대색)은 1920 년대 말, 서울의 밤을 비추게 된다.

일제 강점기의 철도는 근대화의 식민통치화의 양면적 요소인 바, 이곳은 물자와 문명이 들어오는 통로이자 몰락한 농민과 도시 실업자들의 집합소라는 명암이 교차하는 곳이었다. 이곳이야말로 경성이 갖는 양면성의 집결지가 된다. 철도는 도시와 도시를 이어주는 새로운 교통로였으며 도시의 성장을 전례 없는 속도로 가속화시켰으며,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분리 및 시공간 압축의 상징이었다. 이에 따라 철도는 인구의 변동뿐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새로운 행태를 낳았다. 여행의 도정이 철도로 바뀌면서 사람들은 상품생산체계에 포섭되어 사적인 개인에서 대중의 한 사람으로, 특히 단순한 소비자로 전환된다. 아울러 철도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를 빠른 시간에 주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간의 축소를 가져왔는데, 이 시간의 축소는 곧 공간의 축소를 의미하였다. 그러니까 철도가 요구하는 시간의 표준화는 이질적인 지역적 시간들을 제거하고, 표준화되고 물리역학적이며 동질적인 추상적 시간으로 대체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은 자신의 시간적 정체성을 상실하였고 장소에 결속되어 있던 전통적인 시공간의 좌표에 익숙해있던 사람들에게 탈정향의 효과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동시에 기차가 제공하는 스펙터클로서 공간과 현실을 지각하는 시각 경험은 시각의 기계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기차여행자는 자신의 머리를 돌려가며 풍경을 둘러볼 기회가 제한되며, 그들이 보는 것이라곤 스쳐 지나가고 곧 사라져버리는 스펙터클로서의 풍경뿐이기 때문이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에 의해 시지각이 처리해야 하는 시각 인상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당시 경성의 상권을 주도하고 있던 진고개 일본인 상점은 조선인에게도 근대적 소비욕구를 자극하고 충족시켜 주는 유혹적인 공간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 백화점은 그러한 소비적 유혹의 상징이었다. 식민지 조선인의 척박한 일상 너머에 새로운 소비문화가 펼쳐진 것이 바로 경성거리에 등장한 백화점이다. 백화점은 상품만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문화적 삶의 꿈을 판매하는 곳이기도 했다. 세계 최초의 백화점은 1852 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점한 '봉 마르셰'(Bon Marché)이다. 백화점은 낮은 이윤율로 상품회전율을 높이는

데 의존하며, 소비자는 반드시 상품을 사야 한다는 의무 없이 자유롭게 상점에 들어서도록 유인된다. 백화점은 전통적인 상점에서 거래를 매개하던 대화를 말없는 가격표로 대체하며, 산더미처럼 진열된 상품들 사이를 지나다니는 고객의 지각은 철도 여행이나 대로의 통행인들의 그것과 유사하게 파노라마적인 것이 되기 때문이다. 철도와 역전 광장에 운집한 군중들의 움직임을 주시하여 이를 상술로 연결한 것이 다른 아닌 백화점이다. 무의식 중에 일상적인 규범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시각문화의 극치인 쇼윈도(예술적인 전시공간)의 등장도 바로 그로 인해서이다. 1930 년대에 들어서자 세계는 백화점 시대를 맞이했다. 일반인들에게 백화점은 근대적 소비문명의 상징이었다. 식민지시기 서울에는 모두 6 개의 백화점이 설립되었다. 백화점이 본격적으로 설립,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1920 년대에 들어서였다. 신세계백화점의 전신인 미쓰코시(三越) 백화점은 1906 년 일본 미쓰코시 백화점의 경성 총장소인 미쓰코시오복점(三越吳服店)에서 출발하였다. 미쓰코시 백화점은 1930 년 10 월에 연건평 2 천 평 규모의 매장을 신출, 공사, 완공하였는데 백화점 옥상에는 '옥상 공원'을 설치해두었다. 이상이 [날개]에서 어디론가 무턱대고 쏘다니다 몇 시간 후 대낮에 자신이 미쓰코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 바로 그 옥상이다. 매장은 지금도 신세계백화점이 본관 건물로 사용하고 있다. 미도파백화점의 전신인 조지야(丁字屋)백화점은 1921 년에 설치되었으며, 미나카이(三井)백화점이 1922 년에 충무로에 세워졌다. 지금의 세종호텔 자리다. 히로다(平田)백화점은 1926 년에 설립되었다. 조선인에게 일본인 상가의 백화점은 매력적이고 환상적인 소비문화의 유혹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민족적 열등감을 자극하였다. 화신 연쇄점은 1934 년 주식회사 화신의 신사업으로 설립된 것이었다. 그 후 시세를 확장하여 350 개의 점포를 갖고 있는 국내 굴지의 체인 스토어가 되었다. 또한 1937 년에 재건된 화신백화점의 내부에 엘리베이터가 실용화되었다. 1930 년대의 열풍이 불기 시작한 곳은 다른아닌 바로 그 백화점의 쇼윈도우 앞이었다.

그러나 당시 경성의 도시화는 한인들의 산업 및 생활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된 것이어서 오히려 구획 정리 과정 중, 문물제도의 획기적 개편, 사회시설의 정비, 생활편의의 향상 등 긍정적인 면보다는 시민 건강의 퇴폐, 범죄율 격증 및 도시 계획령에 의한 중소 상인의 몰락, 시민 부담의 증가, 소시민의 토지 상실 등 부정적 측면과 인구의 도시 집중화로 인한 실업자의 격증을 낳았다. 당시 명암이 공존하며, 혼란스럽게 펼쳐지는 대도시 경성의 면모는 이렇게 기록된다. *"경성은 집집의 쓰레기나 변소에서 매월 수 천 차의 똥오줌과 쓰레기를 산출한다. 그러나 이 똥오줌이나 쓰레기 못지 않게 더러운 화류병자, 고히중독자, 타락자, 정신병자도 산출하고 남이 보면 얼굴을 찡그리는 걸인도 산출한다....부호와 걸인, 환락과 비참, 구와 신, 이 모든 불균형을 4 십만 시민 위에 '씩씩'하게 배열하며 경성은 자라간다."*

1910 년 토지 조사 사업의 과정에서 조선 농민의 대대적인 토지 상실, 소작권의 상실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1920-30 년에 걸쳐 한반도 농민들을 농촌을 버리고 일본 본토, 만주로 떠났으며 일부는 경성, 부산, 평양 등지의 도시로 몰려들어 지게꾼, 날품팔이, 행랑어멈 등등의 최하층 노동에 종사하게 된다. 산업화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었으니 다른 제조업 등의 산업 부분에서는 노동력을 수용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빈곤층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은 1920 년대 초부터 일어나고 있었다. 또한 당시의 지식인의 실업률은 심각하였다. 일본은 근대적 산업과 직업이 발달하여 계급 분화가 근대화되고 있었으나 한인은 노동과 자본이 미분화된 상태여서, 높은 교육열로 일본에 못지 않게 양산된 한인 지식인 계층은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조선의 지식인들은 실업자가 되어 외관상으로 근대화된 서울 거리를 헤매게 되었다. 1930 년에 직장을 잃은 실업자는 약 15 만 명에 이르렀고 일본에서 직장을 잃고 귀국한 사람도 5 만 명이나 되는 실정이었다. 1929 년의 세계대공황을 사이에 둔 20 년대 후반기, 30 년대 전반기는 한반도도 또한 대단한 불경기여서 실업, 결식, 아사자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많은 여성들은 결식보다 매춘을 택했고 그 결과 향락 산업은 크게 번창하였다. 1920 년대부터 도시공간에서 가장 첨단적인 것은 '카페'였다. '카페'는 현대적이기 때문에 일탈적 이었으며, 일탈적 공간이기에 현대적 도시를 형성하는 공간이었다. 카페라는 신형 술집이 조선에 도입된 것은 1920 년 말로 추정된다. 30 년대에는 카페, 바, 다방 등을 비롯하여 도시에 새로 생겨나기 시작한 공간들이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나갔다. 다방과 카페는 커피를 판매하는 것은 공통된 것이었지만 다방에서는 술을 팔 수 없었고 카페에서는 술 판매와 함께 여급의 접대가 제공되었다. 이국정서로 분위기를 낸 실내디자인과 '모던'한 차림을 한 여성들이 시중을 드는 것만으로도 카페는 공개화된 '성적 서비스의 공간'이었다. 따라서 현대적인 인간을 자처했던 지식인과 '양행꾼'(본래 서양을 다녀온 사람이란 뜻이나 흔히 서양물을 먹은 사람들을 가리키던 용어)그리고 '모던보이'와 '모던걸'들은 카페로 몰려들었다. 이 당시 경성의 유명 카페는 다음과 같다. 菊水, 丸비루, 명치헌, 바론, 엔젤, 왕관, 백마(이상 명동, 회현 日人街), 종로회관, 낙원회관(종로) 등이 그것이다. 구인회와 목일회 회원들이 술을 마신 곳도 종로 낙원회관 등이었다고 추정된다. 카페는 근대 도시화된 경성의 새로운 소비공간이었고 공업화를 겪으면서 생긴 여가의 개념으로 마련된 공간이었으며 사회에 대한 저항을 표출하는 소통공간이기도 했다. 또한 유행의 최첨단을 걷고자 하였던 계층이 유행을 주도하면서 타인과의 차별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또한 카페는 도시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여가 공간이 상류층에서 하류층으로 퍼져 나가는 양상을 띠어 초기에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일본인과 상류층 조선인만이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 점차 조선인 거주지로 확대되는 현상이었다. 당시의 인텔리들이 카페를 이용하였던 이유는 카페에는 모던한 여급들이 있어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고 옆에 앉아 인생과 학문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자유주의적인 학풍과 신식 여성과 자유연애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최첨단의 유행을 따르고 자유 연애를 중시하는 등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사고 방식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하였고 더 나아가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여 토론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바람이나 서구 문명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다. 카페는 이들이 사회와 충돌하지 않고 즐길 수 있었던 소통공간이었다. 카페에서 근대화와 식민지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지식인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우월한 서구문화를 향한 동경과 그것을 누리고 있는 자신이 상대적인 우월감, 반면 그것에 대한 열등의식을 전통의 강조라는 측면으로 극복하려는 모순적인 형태들이 다양하게 표출되었던 것이다. 근대에 이르러 예술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공간이 바로 이 카페이다. 중세 시대의 그림, 음악, 그리고 이야기 한마당은 거의 대부분 어떤 사회적 목적을 띤 마을의 공동 행사였다. 게다가 그들은 마을 단위 별로 공동의 문화생활을 위한 공간이 있었다. 그런데 봉건제도의 몰락과 더불어 이를 위한 조건들이 점차 소멸하게 되자 그 공간을 카페가 대신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소설을 만들어내는 작가들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카페로 갔으며 18 세기에 이르러 예술가들은 영주나 귀족들의 재정적 후원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들과 보이지 않는 관계라는 시장 경제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 결과 독자나 관객들과 직접적인 만남이 기회를 잃어서 그들은 서로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와의

접촉이 필요해졌다. 즉 카페는 근대 도시라는 공간에서 예술가들이 교류하는 가장 필수적인 공간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카페는 1930년대 경성의 예술가들의 집합지가 되게 된다.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최초의 다방은 일본인 거주지에 1923년을 전후하여 생긴 후다미(二見)였다. 한국인이 세운 최초의 다방은 1927년경에 문을 연 '카카듀'라는 곳이었다. 다방은 서양의 음악을 즐기며 서구 문물을 소비할 줄 아는 신식계층의 형성을 촉진시키기도 하였다. 사실 3.1운동을 치르고 난 뒤 생겨나는 다방은 일본인의 것은 대개 본정(충무로), 명치정(명동)을 중심으로 생기며, 조선 사람이 하는 다방은 대체로 종로 일대를 중심으로 생겨난다. 1923년 종로 2가에 멕시코가 생겼고, 유치진이 소공동에 프라타나스를 개업했으며 북혜숙의 경영으로 비너스가 인사동에서 다방문을 열었으며 이경손이 그의 연인과 함께 다방을 경영, 김연실이 미술인 이순석이 경영하던 시청 앞의 낙랑팔라를 인수하여 낙랑으로 발전시켰다. 그 뒤로 연학년의 트로이카, 김관의 에리사명곡감상실, 방한준의 라일락 등이 뒤를 이었다. 여기에 시인 이상도 1933년 제비를 내게 된다. 이중 특히 동경미술학교 출신인 미술가 이순석이 경영하던 '낙랑팔라'와 그것을 인수받아 여배우 김연실이 경영하던 '낙랑'은 '목일회'계열의 미술인(김용준, 길진섭, 구본웅 등)과 '구인회'동인(이태준, 이상, 김기림, 정지용, 박태원 등)들의 본거지 역할을 한다. 당시 김용준, 이태준, 구본웅 등은 동양주의 또는 조선주의를 지향하는 논객으로서 문제의식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갔다. 이들은 정치성을 배제한 예술이상주의 이념과 사상 또는 서구 모더니즘을 바탕에 깔고 있었다. 신문사 학예란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들과 룸펜 문인들로 구성된 이들은 도심을 배회하는 것을 일과로 삼았는데 그들이 매일 만나는 장소가 "낙랑팔라"란 다방이었다. 이 곳은 30년대 조선 지식인층의 집합소라 할 수 있는 곳으로 모더니즘의 첨단적, 혹은 댄디풍의 감각이 풍미하던 곳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이곳을 기점으로 낙원 카페, 아서원 등을 배회하며 경성 공간을 체험했다. 그런데 "낙랑팔라"가 위치한 장고천정 입구는 일본인 거리의 길목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이곳은 경성 내의 내지인을 위해 형성된 상가였던 본정의 입구로서, 본정은 당시 경성의 은좌라는 호칭을 받을 정도로 길 양측에 내지인의 1류 상점들이 죽 늘어서 있어, 밤에는 오정목에 달하는 불빛이 죽 늘어서 있어 지금 보아도 장관의 야경을 이루고 있었다. 결국 이곳은 거리의 이름만큼이나 동경과 가까웠던 곳이었다. 가장 근대와 가까운 도시였음에도 가장 조선의 현실과 거리가 먼 곳, 그곳이 당대 지식인 문인, 화가들의 배회하던 장소였다. 이들은 새롭게 등장한 카페 및 다방을 교류의 장으로 전개되며 더 나아가 당대 제일의 거부이자 창문사를 운영하던 구자혁의 아들이었던 구본웅의 재력가 상황 또한 이들 미술인과 문인들에게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인 이상은 창문사에서 잠시 일하기도 했으며 그때 김기림의 시집 '기상도'의 책 장정을 맡기도 했다.

당시 구본웅의 화실 겸 거실은 당대의 화가, 시인, 작가, 비평가, 영화감독까지 모여드는 곳으로 문예살롱의 기분이 짙었으며 구본웅의 집을 다옥정이라고 부르기까지 했다고 했다. 이들은 도시화된 경성을 배경으로 숙성된 모던보이들로서 당시 유입된 이 모더니즘에 심취했던 이들이다.